

폐철도 유휴부지 도시 숲 조성

익산시, 인화동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 5ha... 최장 20년 무상 사용

익산시가 제안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이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주민에게 푸른 도시 숲을 선물하게 됐다.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더는 사용하지 않는 폐철도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이 사업을 제안하면 국가철도공단이 심사를 거쳐 최장 20년 철도 유휴부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번 사업 부지인 인화동 1가 223번 지 준공업지역 일대는 전라선 폐선

이후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아왔다.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인근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쾌적한 숲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길이 1km, 폭 10~100m 구간이며, 규모는 5ha로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산책로와 쉼터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며, 시는 폐철도 유휴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산림청 기후 대응

기금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금을 포함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설계단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지역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나무를 심은 쉼터와 산책로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세먼지가 지 저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일제강점기 익산의 독립운동과 인물들 재조명

문화도시지원센터, 1920년대 이리·익산의 항일 독립운동 포럼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는 12일 익산청년시청 1층에서 '일제강점기 이리·익산의 독립운동과 인물들'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920년대 후반 이리·익산의 독립운동과 항일 운동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황성근 익산독립운동사 기념회 상임대표는 기조 강연을 통해 익산 근대기 의병운동과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소속 이명진 박사는 1920년대 후반 이리·익산에서 독립운동으로 활동한 청년회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공유했고,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전북의 독립운동과 기자운동을 발표했다.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1927년 이리 신간회 사건과 임혁근 열사의 활동에 대해 강연했다.

자유로운에서는 오대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규형 전북 CBS 보도국장, 신귀백 익산근대문화원

연구소장이 모여 발제 내용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시는 향후 포럼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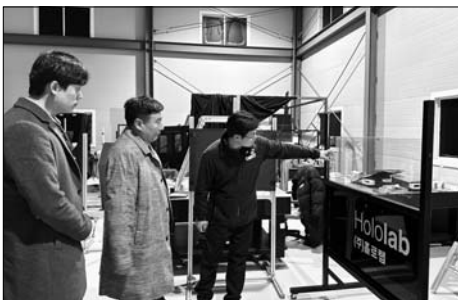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익산 신간회 활동의 중심이었던 임혁근 열사의 친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일제와 맞서 싸웠던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익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가치와 역사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허전 익산부시장, 홀로그램 선도도시 현장의 소리 경청

허전 익산부시장은 지난 11일 홀로그램 관련 기관·기업을 찾아 홀로그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익산시에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소재 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원광대학교 XR관 등 홀로그램 관련 기관이 자리해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카이엔연구원, 원광대학교 등이 협업을 이루고 있다

허전 부시장은 이날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센터가 5년간 추진한 사업 현황과 홀로그램 산업 동향, 향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계획을 살폈다

이어 홀로그램 기업인 (주)홀로랩(대표 신동학)을 방문했다. 홀로랩은 2019년 부산에서 익산으로 본사를 이

전한 뒤 2020년 익산시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홀로그램 장비 증설을 위해 추가로 오산면에 공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홀로랩은 익산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공모사업으로 상용차에 활용되는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헤드업디스플레이 서비스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투명 디스플레이와 프린팅 장비 AR 글래스 등 홀로그래픽 기술을 다수 보유한 업체다

허전 부시장은 "익산시가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익산으로 이전해온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의 우수건물이 일반분야 금상에 나운동 소재 'LE LAC', 공공분야 금상에 조춘동 소재 '금강도서관'으로 선정됐다.

LE LAC · 금강도서관 금상 수상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일반·공공분야 수상작 선정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의 우수건물이 일반분야 금상에 나운동 소재 'LE LAC', 공공분야 금상에 조춘동 소재 '금강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건축물로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건축인 발굴을 위해 지난달 24일 '제6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일반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공공분야 3점(금·은·동상 각 1점) 총 6점의 우수건축물에 대해 12일 열렸다.

지난 2011년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군산시 건축문화상'은 일반분야 5점, 공공분야 4점 총 9점이 접수됐으며, 일반분야 금상에 나운동 소재 'LE LAC', 은상에 성산면 소재 'Twinkle Hasing', 동상에

미정동 소재 '이현재(二鉞齋)'를 선정했다.

공공분야 금상에 조춘동 소재 '금강도서관', 은상에 조춘동 소재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및 어린이도서관', 동상에 옥구읍 소재 '우포보전지료소 및 우포경로당'을 선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시청 2층 심의실 내에 건축문화상 출품작을 전시했으며 이날 시상식이 열렸다.

안정수 건축경관과장은 "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군산시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문화의 발전과 저변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젊은 건축인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 건축문화상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광근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군산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 까지 총 5회에 걸쳐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정교육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친절서비스 개선,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세무 노무관리 등이며, 시는 이에 따른 전문 강사진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군산=김광근기자

익산시, 옹포 곰개나루 복합문화센터 준공

익산시는 12일 옹포면 곰개나루 복합문화센터 준공식을 열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할 뜻을 다짐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인 곰개나루복합문화센터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됐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39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센터는 2층 규모이며 식당과 다목적실, 휴게공간,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각종 교육과 견학, 회의, 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주민이 센터를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사업 준공 후에도 센터 운영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군산시는 올해 하반기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1, 협업팀 2, 공무직 1)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기술보급과 박용우 기획생산계장 △어업진흥과 박창용 어업지원계장 △환경정책과 김성경 주무관 △하수와 조충현 하수계획계장 황대원 주무관 △문화예술과 오은정 주무관 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원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복합영

농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예용수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한 기술보급과 박용우 기획생산계장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토종농업 첨단지 지원회복을 위해 치매 방류사업을 추진한 박창용 어업지원계장, 장려상에는 환경변화와 기후위기 프로그램 기획·운영한 환경정책과 김성경 주무관이 뽑혔다

이 외에도 하수도 설계기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해 상습침수 구역 내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 국지성 호우를 대비한 하수와 조충현 하수계획계장과 황대원 주무관이 협업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김광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